

춘천커피축제 9월 첫 개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차별화



1 갓 볶아 놓은 에티오피아산 모카원두 2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 포스터



대상으로 360도 VR 카페 콘텐츠 구축 서비스와 플랫폼에 접속하면 누구나 모바일과 PC에서 카페 관련 정보 검색과 방문객끼리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하는 업소에 대해 사이렌 오더와 같은 '이지 오더 서비스'도 추진한다. 또 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는 축제 기간 매주 주말에 맞춰 커피 합일과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커피 아트 앤 아티스트' 특별전, 로봇 커피 특별관, 세계 커피 품물전, 시민참여형 커피 체험전, 유명 카페 어반스케치 전시 등이 풍성하다.

춘천시는 축제 개최 이유에 대해 커피의 발상지인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춘천에서 전투를 벌였고, 1968년 공지천에 국내 첫 로스터리 커피숍이 생기는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2007년 춘천에 커피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시도했지만, 중단된 데 이어 2014년 남춘천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공장이 추진됐으나 좌초됐다. 하지만 2018년 400여 곳이던 커피전문점은 지난해 672곳으로 급격히 늘어나더니 최근 700여 곳의 커피 관련 카페가 성업 중이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춘천은 스토리와 카페, 커피 전문가 등에다 천혜의 자연조건, 사통팔달 교통수단이 합쳐져 완벽한 커피도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분위기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카페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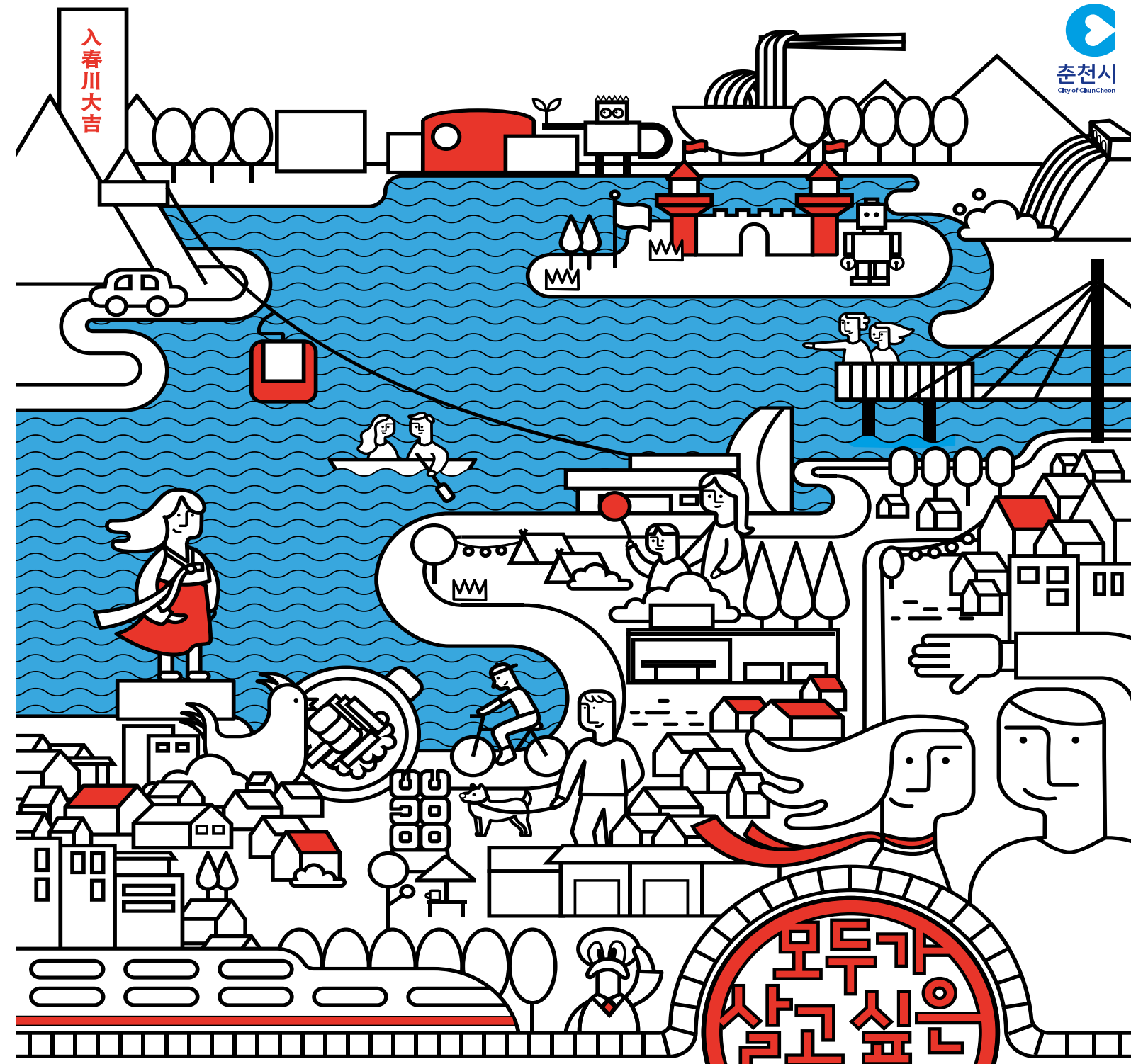
춘천시가 커피도시를 선언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시도하는 온·오프라인 커피축제를 연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축제는 9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7일간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일대와 카페가 집중된 구봉산 일대 등 5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인다.

특히 축제에 참여하는 카페 현장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말한다.

김홍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7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T(정보기술)와 CT(문화콘텐츠기술)를 조합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 춘천커피축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와 연동되는 정보제공형 VR·AR 웹플랫폼 구축, 춘천지역 커피 전문점 3D 맵핑, 네이버 플레이스와 SNS 실시간 동기화 등 특화 서비스를 준비한다. 아울러 올해 100개 업소를



CHUNCHEON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반복되는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 도시는 늘 사람의 꿈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불꽃향기 가득, 사람과 자연이 만족하며 공존하는 곳. 느리게 걸어가며 하루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곳. 춘천은 언제나 낯설지만 아름다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네이버에서
춘천을
만나보세요.

